

# 7주년 맞은 '엄마의 밥상'

### 전주시, 매일 따뜻한 도시락 전달해준 조리사·배달원·영양사들에게 표창 수여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어느새 7주년을 맞이했다.

전주시는 20일 300여 명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준 '엄마의 밥상' 시행 7주년을 기념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데 힘써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했다.



아침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이 어느새 7주년을 맞이했다.

밥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4년 10월 20일 18세 이하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 120세대, 183명을 대상으로 첫발을 댄 '엄마의 밥상'은 현재 3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확대 추진되고 있다.

3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매일 밥과 국, 3찬이 포함된 도시락이 배달되고, 간식과 생일케이크, 명절맞이 선물 등도 지원되고 있다.

시는 이날 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 새벽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준 조리사와 배달원, 영양사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엄마의 밥상'은 내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과

단체, 개인 등의 후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엄마의 밥상'에 전달된 후원금이 총 10억5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금뿐만 아니라 한우, 우족, 당, 빵, 과일 등 간식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전주시민들이 선정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 손꼽히며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우수정책으로 소개된 '엄마의 밥상'은 올해 3월 라이온봉사대상을 수상하

는 등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7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엄마의 밥상'은 '시민이 함께 차린 밥상'이자 '국민과 함께 차리는 밥상'이 될 만큼 울림이 크고 따뜻한 사업이 됐다"며 "전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외로울 때 곁을 지켜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따뜻한 아침밥상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효천지구 농산물 주말 직거래장터 재개장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운영

금·토요일에 만나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효천지구에서 다시 문을 연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마다 효천지구 공영주차장(삼천동2가 762-1)에서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시

민들에게 공급하고 내년 초에 개장할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을 사전 홍보하기 위해 장터를 기획했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농·축산물, 김치를 비롯한 각종 반찬류, 군고구마, 군밤 등이 시중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추가 농산물이 증정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방문 인증할 경우

전주푸드 장바구니가 제공된다.

또 타임세일, 현장 즉석 할인, 식행사, 버스킹 공연, 할로윈 포토존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더불어 센터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아예 포장재 없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홍보관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 전주형 공공배달앱 내년 2월 도입 속도

### 2% 이하 수수료·전주사랑상품권 이용 가능 27일 공공배달앱 구축·운영 민간사업자 모집

전주형 공공배달앱이 내년 초 도입된다. 2% 이하의 수수료는 물론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이용도 가능해 그간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광고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27일 '전주형 공공배달앱'을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내년 2월 가동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형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광고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대형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로 6~12%를 내야 했으나, 전주형 공공배달앱의 경우 건당 2% 이하 수수료에 광고비나 가입비 등의 별도 추가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전주형 공공배달앱에는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탑재되며, 전주푸드와 공예품 전시관 등 온라인몰을 연계하는 메뉴도 마련된다. 또 리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캠페인이나 안전용품 지급 등의 서비스도 준비될 예정이다.

시는 앱 개발과 운영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직접 개발방식 대신 민간배달앱 사업자가 구축·운영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구축 후 가맹점 모집부터 시스템 관리,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홍보마케팅 및 서비스 총괄 관리는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나누어 맡는 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기로 했다. 참여 자격은 지난 12월 기준 배달앱을 운영 중인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위탁(계약)한 자여야 한다. 또 고객센터센터 운영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조직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 사업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업참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완산구 아중로 33)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9일 참여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전문성과 안전성, 운영노하우, 가맹점 확보 방안, 홍보전략,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시민들과 함께 전주형 공공배달앱 브랜드명을 선정하고 브랜드를 제작한 뒤 4000여 개의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전주형 공공배달앱과 관련해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80.7% 소상공인 응답자의 88.3%가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시 이용 의사를 밝혔으며, 소상공인은 '민간 앱보다 낮은 수수료, 시민들은 '지역화폐 사용'을 주 이용 사유로 꼽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봐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공공배달앱이 희망의 빛이 되 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부담을 내리고 소상공인과 사용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방향 모색 위한 워크숍 가져

전주시 인권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더 나은 인권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20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인권정책 전문가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주시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인권기본계획과 시정 목표, 여타 기본계획 간의 연계의 중요성과 인권영향평가제 등 이행점검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인권도시 기반 조성 △인권친화도시 환경 조성 △사회적약자 및 시민 인권정책 강화 △

인권가치·인권존중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목표, 31건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지역 인권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권오훈 직장감질119 교육센터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근거로 권 센터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두통, 위장 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섭식장애, 호르몬분비 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 야기, 항정신성 약물 복용 증가 등 개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동료나 목격자의 간접적 피해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생산성 감소 등 조직적인 영향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도 가부장적 통념인 성차별적인 괴롭힘 사례와 전통적인 조직문화 등 직장 내 관행으로 이어온 괴롭힘 사례 등 2개 유형의 사례들을 들며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끝으로, 김명수 전주시 인권정책팀장은 △전주시·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고충처리 시스템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 강화(캠페인, 간담회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들을 제안했다.

향후 시는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전주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서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5억여원 부과

전주시는 2021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236건, 35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30% 일괄경감을 추진했던 지난해에 비해 신규 대상 및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약 2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담금은 비터면적의 합계(㎡)에 단

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해당 금액에 미사용감면 및 법정감면금액을 뺀 금액이 최종 부과된다.

납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가상계좌 이체 △유택스 △인터넷 지로 △전국 금융기관 방문(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윤상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 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